

농업인 안정적인 수익 창출부터 복지·노후까지

사람이 모여드는 행복한 농촌으로

익 익산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복지, 노후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국내 대표 농업 수도로 도약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통 채널과 인력수급 체계를 다각화한 익산형 농업 인력풀로 농업인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은퇴 후에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으로 노후생활까지 책임진다.

흡족하게 구축된 다양한 인프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사람이 모여드는, 행복한 농촌으로 거듭난다.



남산 고구미중순 수확 현장

▲디지털 플랫폼 기반 유통 채널 확대·안정적 수익 창출

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판매 유통 채널을 강화해 농가 판로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올해는 농가 소득 창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온 마을전자상거래의 전문성을 높여 판로개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 인력 풀을 갖춘 대행사를 선정하고 홍보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전문 대행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실시하고 수수료 할인, 주력상품 프로모션 등 농산물 홍보와 오픈마켓 판매처를 확대한다.

또한 각종 콘텐츠 제작, 다양한 SNS 채널 등을 운영해 적극적인 판매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역 농산물 물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마을전자상거래 입점 농가와 다송관역 중앙유통거점센터 간 순회·수집 물류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농가가 택배 상품을 예약하면 수집 기사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거해 다송관역 중앙유통거점센터에 집하하고 집하된 상품은 택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형 인력풀로 일손 걱정 없는 농촌 만든다

시는 보다 확대된 익산형 인력풀로 일손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인 포함해 연간 3만명 근로자 파견을 목표로 인력을 발굴한다.

센터는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익산시 금마·

남산·여산농협 등과 함께 올해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이 새롭게 합류해 모두 5곳이 운영된다. 오는 3월부터 기존에 마련된 인력풀에 추가 모집한 800명까지 총 2,500명의 근로자가 소규모 농가에 투입된다.

수도권에 있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한 인력 발굴도 추진한다. 시는 숙박비와 작업수당 등을 지원해 수도권에서 체류형 인력을 유입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교류를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베트남 아이슬군을 직접 방문해 효율적인 인력 교류 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봄철 농번기 이전에 MOU 체결하고 인력 투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농가 수요에 따라 하반기까지 최대 220명 투입을 목표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풀로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자치연금으로 노후까지 책임진다

안정적인 소득에 이어 농업인들의 인생 2막까지 책임진다.

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익산형 노후 소득 강화체계인 '마을자치연금'을 점차 확대해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현재 성당포구마을에 이어 합월 금성마을이 마을자치연금 수익 기반을 완공해 운영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마을자치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국적 확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성당포구마을을 연수소로 지정했으며 이곳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마을을 발굴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마을자치연금과 더불어 농업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확대해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포부다.

정현을 시장은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나 일손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민들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 준공식



마을자치연금 제2호 마을 준공식

마을전자상거래 전문성 높여 판로개척 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안정적 인력수급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연계 인력 발굴도 추진
전국 최초 도입 '마을자치연금' 확대
농촌 어르신들 노후 보장·삶의 질 향상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